



▲지난 4일 경원대학원실에서 同院생회장이 경신대 김승열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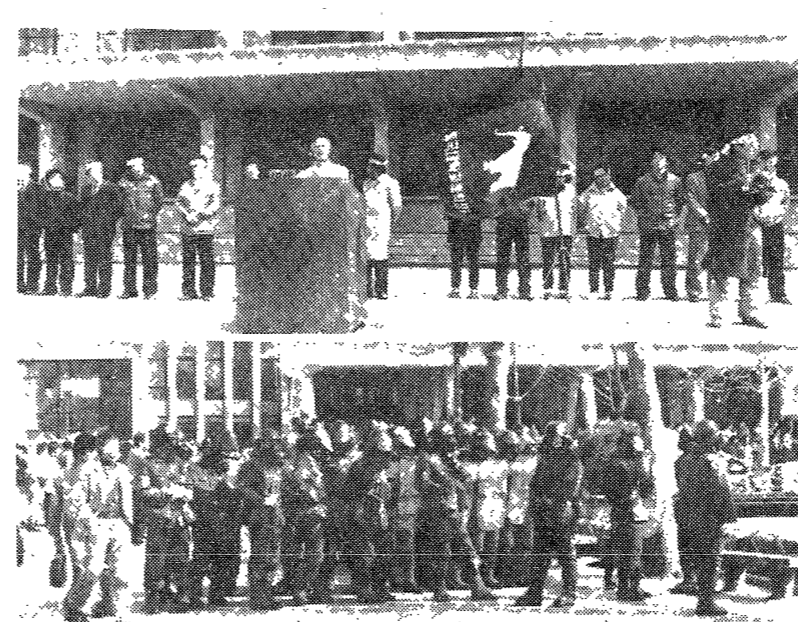
각종獎學金 지급할발

「동국70주년학금」전달됨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경찰, 참가학생 강제해산

18대 총학생회 출범식 중단



▲오늘 (11日) 오후 1시에 총학생회 출범식이 거행되던 중 정·사복경찰 4백여명이 진입, 강제해산시켜 출범식은 중단되었다.

진정한自由·眞理 상아탑되게

이날 아남사 「제1회 학생자치회」 출범식에서 18대 총학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서른살이어서 결의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男女修習記者募集

1 모집인원 : 서울·경주캠퍼스=약간명
2 응시자격 : 1학년 男女在學生
3 제출서류 : 본사소정양식 1통 (배부중)
4 원서접수 : 86년 3월 26일 마감 (경주는 20日)
5 시일일자 : 86년 3월 26일 오후 5시 (경주는 20일 오후 5시)
6 시일과목 : 1차면접 : 국어, 영어, 상식, 작문
2차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공고)
7 제출처 : 본사총무부
8 시일장소 : 추후공고
※學生기자에게는 規定에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함.

26일 전형, 원서 배부중

이時代의 빛을 찾습니다

東大新聞社

單大別 신입생 환영회

지난달 師大필두로 피너키서 열려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2백94명 학사정계

지난학기 정정률 87.4%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대학원 졸업시험

내달 11일부터 실시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법과사람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도서대출량 매년 증가

지난해 총 18만 8천 4백 42권으로 집계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직인사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특별대우 교수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행대원 총인사

동국대학교는 4월 11일 경원대학원실에서 동원생회장이 김승열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승열, 吳德永, 安惠明이 부대학장, 趙熙榮경신대학장 黃仁編同院생회장)

생명공학의 미래를 여는 대우의 젊은 엘리트군단

세계의 함께, 미래의 함께

▲제1회 과학·중요연구소 김영문박사

국내최초로 20여종의 제한효소(Restriction Enzyme) 자체개발에 성공한 대우의 젊은 엘리트군단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잡은 제1회 과학·중요연구소 김영문박사의 대학원실에서 국내 최초로 20여종의 제한효소를 개발한 젊은 엘리트군단의 리더, 김영문박사(34세)가, 생명공학연구팀을 이끌고 가는 그는 「1년만에 결실을 맺은 제한효소의 개발로 본격적인 생명공학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영문박사의 대학원공은 화학공학, 그러나 그는 75년 대학졸업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으로 2년동안의 석사과정을 마쳤다. 졸업하던 해인 77년 그는 대우에 연구원으로 입사, 회사의 배려(산하재단의 장학금)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생명공학분야의 유망주, 크지도 않은 체구에

금태인정을 쓴 그에게서는 생명공학의 첨단기술개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 자세를 느낄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회사의 배려와 탄력의 덕분이다"

제한효소는 유전자 조작에 필수적인 생명공학의 기본과제로 DNA를 절단하는 도구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김박사 개인적으로는 연구기간중 항상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연구에만 전념해달라는 아내의 뜨거운 격려가 이번 제한효소개발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후회한다. 평소 손때가 진득 묻은 연구실과 기가재가 김박사의 분신과도 같다는 말에 연구원의 투철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국내 생명공학의 연구기초설정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제한효소는 20여종으로 그중 40여종이 보유하고 있는데 40여종의 제한효소중 20여종을 이번 개발하여 대량생산함으로써 국내 생명공학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김영문박사.

「지금까지는 생명공학의 연구를 위해 제한효소의 전량을 고가격으로 수입했었기에 제한효소의 대량생산으로 국내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박사 최후의 첨단기술 생명공학은 선진국간의 점유율이 아니라 우리의 것도 될 수 있다고 김박사는 자신있게 말한다.

생명공학의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20여종의 제한효소개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생명공학연구에 전념하겠다.」 김박사는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를 시작

하라합니다. 예를들어 100%무공해농약, 감세계 공금할 수 있는 의약품, 대체식품, 허의 우량종개발, 그리고 가축성장 호르몬의 개발등을 들 수 있겠지요.」 「생명공학은 개발혁신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 사업체, 연구소 및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젊은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한다던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답니다

김박사의 말 한마디에 2천만대를 향한 국내 생명공학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대학원문제 기획잡담

대학원문제 기획잡담

대학원문제 기획잡담

학문의 해외의존 극복해야

〈참석자〉



박우현 (서울대학교) 박우현 (서울대학교) 박우현 (서울대학교)

학문의 해외의존 극복해야

1교수 1강좌로 질적향상을

1교수 1강좌로 질적향상을

1교수 1강좌로 질적향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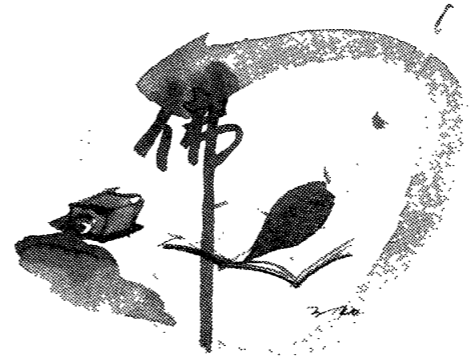
86신임교원 피터필 (86 New Faculty Peter Phil) listing various faculty members with their names and titles.

不信時代 (Disbelief Era) article text discussing current social and academic issues.

부티크 크림 미미론 정 (Butique Cream Mimilon) advertisement for a skin care product.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사이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사이



“현대에 있어서 각각의 종교는 스스로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가 힘을 합해 종교의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 사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각 종교는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본능이 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사회 전체의 화합과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종교가 서로의 편견을 버리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다.

건학이념바탕 학교행정시급 종교적인편견탈피할때

학교 행정의 근간이 되는 건학이념은 종교적인 편견을 배제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학교는 사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행정에서 종교적인 편견을 탈피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문제를 넘어, 학교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각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건학이념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학교 행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각종 학술지 발간 활발

『新羅文化』 20월간 발간
『大韓大學科대학원』 20월간 발간

『한글학』 발간
『한글학』은 한글의 역사, 이론, 응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지이다.

『한글학』 발간
『한글학』은 한글의 역사, 이론, 응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지이다.

18년 전통의 남원군

남원군은 18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지역은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남원군을 찾게 되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노력

정신건강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문화·경제의 거점

사회, 문화, 경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과 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글학』 발간
『한글학』은 한글의 역사, 이론, 응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지이다.

『한글학』 발간
『한글학』은 한글의 역사, 이론, 응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지이다.

새끼 새끼들
새로운 맛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들아들, 쫄깃쫄깃한 영계의 참맛!

Kentucky Fried Chicken

맛 좋고 영양 많은 쫄깃한 후라이드 치킨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하얀겨울, 사연도 많았던 밤하늘 - 쫄깃한 후라이드 치킨과 함께 겨울방학을 이야기 하세요.

엄선된 영계만을 사용 - 11가지 특제 스파이스 양념 - 전용 압력솥으로 튀기는 쫄깃한 후라이드 치킨은 풍부한 단백질 - 피부를 윤기있게 해주는 콜라겐 - 낮은 지방질 - 때문에 세계 60여개국에서 건강식, 미용식으로 인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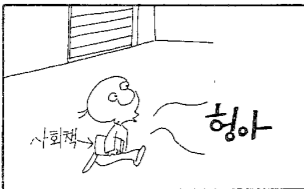
아들아들, 쫄깃쫄깃, 맛 좋고 영양 많은 영계의 참맛 - 친구끼리 연인끼리 오붓하게 즐기세요.

Kentucky Fried Chicken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1 (남산동1) 11층 | 전화: 02-777-1000

여로니

오 향 <3>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최근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지역운동」과 「지역문화운동」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실제적 접근을 신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지역문화 연구 「민족현실과 지역운동」이 나왔다.

특히 「지역운동의 논리와 지역현실」에 관계되는 논문 다섯편과 현저한 박봉우, 문병관 등의 신작시, 번역 「미국의역정적 한반도의 평화」 기획으로 「5월과 문화운동」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광주판, 420면·4,200원>

메이리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황성옛터」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들을 때마다 흥분해지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가사나 처절한 곡조가 편지 편지를 펼치게 가요라 함은 이러한 까닭으로 민족의 심금을 울리고 또 때로는(?) 애증을 내게하는 때를 지냈다고 볼 수 있다.

옛성터에 영화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성벽마저 허물어져 집초와 달빛만이 노닐다는 무상의 뜻도 지녔지만 좀더 생각해 보면 韓民族의 강한 자존심을 내세운 강한 의지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당시 노래가 흥얼거릴 때마다

해학속에 三綱五倫의 유교 도덕 나타나

고수 5명같이 6백20분 완창기록 보유

판소리는 우리의 토속종교인 무당굿, 한문을 읽을 때 내는 글소리, 불교의 법과, 원래 唱法과 몇 종류를 혼합하여 만든 고유성의 심오로 특별한 무대장치 필요 없이 하지 않으며 唱者·敲手 두사람만으로 공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성도 거의 없고 화려함도 없는 것이다. 판소리의 기원은 신라의 화랑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이 조선초기를 거쳐 영조에 이르러 정월평음으로써 비술에까지 오를수있게 되었다. 일제때 와서 日人들의 핏줄로 그 맥이 끊길 뻔도 했지만 1928년 이동백 정정열 김창홍 등의 명창에 의해 「조선 성악연구회」가 생김으로써 해서 정식의 교육기관의 성립을 보게된 것이다.



鄭昭盛 著

1970년대 중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학적 현실의 하나로서 6·25전쟁 또는 민족분단의 상황을 형상화하려는 노력의 급증을 손꼽는 데 주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그러한 노력은 소설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산적인 작업의 중심이 되어 왔다. 사실, 해방이후 한국인의 개인적 집단적 생존의 역사에서 6·25가 차지하는 의미와 막중한 감압한다면 문화이, 더군다나 삶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을 지향하는 소설이 민족분단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면 필요하고도 자연의 사랑까지 지워버리려하는 가사가 가슴을 심복하게 한다.



박동진 <소설>

가, 홍보가, 배비장타령, 무수기타령, 장계타령, 응고집타령, 변강의타령, 강릉매화전, 속영남자전 모두 12바탕이다.

일제때, 자기들것만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日人들에게 반발을 느껴 판소리를 시작하게 (17세) 되었다는 인간문화재 5호박동진 (71세) 씨는 말한다. 「판소리가 단순해해학적이고요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삼강오륜의 심오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즉 「춘향전」은 여자의 정조를 「심청전」은 효, 「홍보가」는 열제우애, 「적벽가」는 친구의 의리를 말하고 있어요」



박씨는「우리 판소리는 스승에게 기본만 전수받아 자기스타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대로 두고 唱者의 능력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가지들치는 것이죠」라며 「이러한 점이 바로 판소리가 다른 성악과 구별되는 특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한권을 해당하는 즐거이인만큼 완창하려면 굉장한 시간소요되는것이판소리다 「춘향가는 8시간, 심청가는 7시간, 적벽가는 8시간, 수궁가는 5시간정도인데 한바탕을 완창하는 사람이 셋 드물죠. 저의 경우 68년에는 고수 5명을 같이하며 9시간40분의 기록을 세운바 있습니다」

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족분단의 상황을 위급한 종래의 소설들은 우리가 그 제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기대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6·25의 참화를 家族史의 차원



鄭昭盛 著

여기에 수록된 표제작을 비롯한 「할안치는 소리」 「술꾼 歸國」 등의 작품은 분단현실의 소설적 수용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고있다. 그 새로운 수용은 입체적으로 관습적인 소설기법의 양식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작가의 실험적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鄭昭盛은 종래의 분단소설을 지배했던 단선적, 평면적 因果律에 입각한 이야기의 전개를 배격하고 현실과 환상, 역사와 신화가 서로보일 나뉘고 맞닿는 결말의 복합성 속에서 분단사태의 광범한 삶을 조명한다. 「아테네 가는 배」의 서사와 구조를 떠받치는 비유적 동위의 설정-남편을 잃은 트로이의 왕비가 망부초를 뜯는 남쪽의 아내가 오지않는 재회를 기다리며 만든<청춘강 하류 송림>자수족파의 연결은 그 전형적인 예다.

복제함으로써 그 문학적 과제의 무게에 걸맞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자칫하면 위축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간행된 鄭昭盛의 소설집 「아테네 가는 배」는 고무적인 수확으로 평가될만하다.

이 이야기의 양식에 있어서 「할안치는 소리」와 「술꾼 歸國」은 표제작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6·25의 비극 또는 그로 인한 삶의 旅行을 경험의 중층적인 연관 속에서 묘사했다는 점에서 시이채롭다. 그 작품들은 민족의 상성과 분열이 개인에게 일어난 정신적 外傷을 추적하면서 그것을 원초적인 恨의 응어리로서가 아니라 내밀하고 가혹한 실존적 고통으로서 제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물론, 鄭昭盛의 이런 소설집으로 해서 분단소설이 안고 있는 난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욕적인 작업이 우리가 소망하는 분단소설의 새로운 모색에 값진 공헌을 했다는 것은 쉽게 사리인정할 수 있다. 이번 소설집의 간행을 계기로 그의 문학적 탐구에 한차례의 비약이있기를 기대하면서 양식있는 독자들의 一讀을 전한다.

韓龍煥 교수 <시법대·현대문학>

판소리 <5>

이하더보면 객석에서 못알아 들 수가 있지요. 이것은 외국어를 잘 모르고 오케라를 보면 무슨뜻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판소리의 참예는 동편조, 서편조, 호절조, 중조, 석화조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출현가라해도 부르는 사람이 따라 참법이 다르기 마련이다.

박씨는「우리 판소리는 스승에게 기본만 전수받아 자기스타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대로 두고 唱者의 능력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가지들치는 것이죠」라며 「이러한 점이 바로 판소리가 다른 성악과 구별되는 특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한권을 해당하는 즐거이인만큼 완창하려면 굉장한 시간소요되는것이판소리다 「춘향가는 8시간, 심청가는 7시간, 적벽가는 8시간, 수궁가는 5시간정도인데 한바탕을 완창하는 사람이 셋 드물죠. 저의 경우 68년에는 고수 5명을 같이하며 9시간40분의 기록을 세운바 있습니다」

박동진씨는「명창이 되려면 적어도 하루12시간 이상 50년동안은 노래를 불러야하죠. 요즘 보면 좀 배웠다 싶으면 연습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방송 출연하기를 좋아하는 경향까지 있는데 이것은 자멸의 길인것입니다」라며 판소리의 미래를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김치맛과 같은것으로 춘하추동 김치종류가 바뀌듯 자리를 바꿔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지요. 가장 보람있을때는 소리가 잘 되어서 마음이 기쁠때인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판소리에 있어서 예로부터는 안을 안이하려는게 저는 주로 이러한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현대 감각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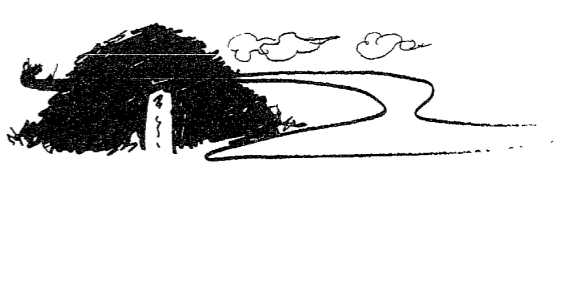
73년엔간판문화제 5호로 지정을 받은 박동진씨는 기존의 12바탕 외에도 「이운신정군」 신소설 이 인지의 「치안산」 성경의 모세, 3편, 팔각간 요셉등 자신이 창작한것 6가지를 더 보유하고 있다.

무덤

홍기운

피해비로선 그대
예해라 황천길
노자라도 얼마 보태는 마음
飛行에 불타는 속문지
표적으로 쫓는 눈빛
출렁이는 산기슭에
소통처럼
달뿜한 작은 섬.

<문과대 국문과>



문화정보

만해 백일장 당선
本校 임형욱君 시 부문서 대한 불교청년회 주최 「만해백일장」에 본교생 임형욱 (국문학과) 이 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원고모집
새학기를 맞아 재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論文(30枚내외)
▲단편소설(60枚내외)
▲시(15枚내외)
▲시·시조
▲수필
▲기타 문화비평
문예홍보부서
東大新聞社

홍사단 금요개척자강좌
14일, 도산과 단재 주재로 홍사단 시민공개강좌인 금요개척자 강좌가 오는 14일 오후 7시 도산과 단재를 주제로 홍사단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강좌가 끝나면 21일과 28일에 강좌가 있게된다.

女流조각 10인展
17일까지 우정 미술관에서 우정미술관은 86년 신춘기획으로 여류조각 10인전을 17일까지 갖는다.

油畫 5인 초대展「현대」
현대미술관에서 18일까지 현대미술관은 油畫 5인 초대전을 18일까지 현대백화점 5층 현대미술관에서 갖는다.

삼양사의 집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승지는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전 구간을 꾸준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 마라톤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며,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삼양사의 연구·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양사는 1924년 창업 이래 꾸준히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해 드리기 위한 연구·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객여러분의 격려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진취적인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삼양사

주요생산품 ●설합●배합사료●수산물●축산●이온교환수지●견방사(Silk)●폴리에스테일 SF●폴리에스테일 FIL